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1.3

미 증시, 리밸런싱 여파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특별한 촉매제가 없었지만,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하락. 특히 장 마감 직전 거래량의 증가와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 보다는 리밸런싱에 따른 것으로 추정. 결국 미 증시는 일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하락. 대형 기술주가 하락한 반면, 필수 소비재 등은 강세(다우 -0.16%, 나스닥 -0.61%, S&P500 -0.26%, 러셀2000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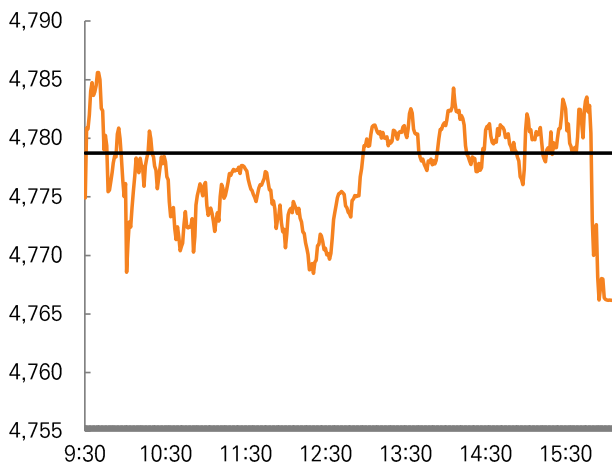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화이자(+1.11%)는 영국 정부 기관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중증도 환자에도 사용을 승인하자 상승. 도미노피자(+1.24%)는 가격 인상을 통해 견고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포드(+1.47%)는 NYPD가 Ford Mach-E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반면, 메타플랫폼(-2.33%), MS(-0.88%), 알파벳(-0.92%), 아마존(-1.14%), 애플(-0.35%), 테슬라(-1.27%) 등 대형주들은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리밸런싱 영향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36%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1.1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12월 31일 미 증시가 비록 하락 했으나, 이는 리밸런싱에 따른 장 마감 직전 매물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다만, 12월 30일과 31일 이틀 연속 장 마감 직전 매물 출회된 점을 감안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12월 수출이 지난달 발표(yoy +32.0%)나 예상(yoy +22.0%)를 하회한 전년 대비 18.3% 증가에 그친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된 가운데 수출 부진과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불안과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충돌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977.65	휴장	상해종합	3,639.78	+0.57
KOSDAQ	1,033.98	휴장	홍콩항셍	23,397.67	+1.24
DOW	36,338.30	-0.16	베트남	1,498.28	+0.83
NASDAQ	15,644.97	-0.61	유로스톡스 50	4,298.41	-0.18
S&P 500	4,766.18	-0.26	영국	7,384.54	-0.25
캐나다	21,222.84	-0.34	독일	15,884.86	휴장
일본	28,791.71	휴장	프랑스	7,153.03	-0.2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2021년 시기별 변화 요인

1월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됨. 이에 힘입어 민주당 발 재정정책 확대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그러나 월말로 갈수록 게임스톱 등 일명 밈 주식들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확대되며 정당한 기업가치 보다는 유동성에 기반한 수급적인 요인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 한편, 1월 27일에는 AMD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 급락하는 등 차익실현 욕구도 높았던 시기였음(다우 -2.04%, 나스닥 +1.42%, S&P500 -1.11%, KOSPI +3.58%, KOSDAQ -4.10%)

2월

1월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월 3일 알파벳이 양호한 실적 발표로 7% 넘게 급등한 이후에는 실적 시즌 기대로 상승세 이어감. 여기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기대로 상승폭 확대. 그러나 미국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미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2월 23일 애플이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으나 배당을 증액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하기도 하는 등 일중 변동성이 확대되던 시기(다우 +3.17%, 나스닥 +0.93%, S&P500 +2.61%, KOSPI +1.23%, KOSDAQ -1.59%)

3월

3월 2일 중국 은보감위에서 “선진국 금융시장은 버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중국발 긴축 가능성이 불거지며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음. 그렇지만, 본격적인 미국 백신 공급 소식이 전해지자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음. 한편, 3/24일에는 열린 재무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잠시 주춤(다우 +6.62%, 나스닥 +0.41%, S&P500 +4.24%, KOSPI +1.61%, KOSDAQ +4.62%)

4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소식에 상승세가 뚜렷. 여기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나, 파월 연준의장등이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상승세 지속(다우 +1.93%, 나스닥 +5.40%, S&P500 +5.24%, KOSPI +2.82%, KOSDAQ +2.85%)

5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자 기술주 중심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더 나아가 인도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자 공급망 불안 심리가 높아진 점도 부담.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기대로 하락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견고한 모습(다우 +1.93%, 나스닥 -1.53%, S&P500 +0.55%, KOSPI +1.78%, KOSDAQ -0.17%)

6월

고용보고서가 크게 개선 되기는 했으나, 예상보다는 부진해 여전히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대 심리를 자극해 상승세 유지. 더 나아가 테슬라가 인도에 사무실과 쇼룸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인도 진출이 이어지자 상승을 주도한 점도 특징. 그러나 FOMC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자 한 때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음. 월 후반에는 실적 장세로 전환하며 재차 강세를 확대(다우 -0.08%, 나스닥 +5.49%, S&P500 +2.22%, KOSPI +2.90%, KOSDAQ +4.91%)

7월

6월 비농업 고용자수가 85만건 급증 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승세 이어감. 이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부각되며 강세. 그러나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 부각 되자 7월 중순에는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으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유럽의 봉쇄가 확대되자 한 때 매물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7월 후반에는 실적 시즌에 기반해 강세(다우 +1.25%, 나스닥 +1.16%, S&P500 +2.27%, KOSPI -2.86%, KOSDAQ +0.11%)

8월

월 초반에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 기반해 상승하기도 했으나, 소비심리지수가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한 때 하락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8월 말에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콘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재차 상승세를 이어감(다우 +1.22%, 나스닥 +4.00%, S&P500 +2.90%, KOSPI -0.10%, KOSDAQ +0.70%)

9월

미국 8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가 지난달 105.3만 건은 물론 예상치인 74만 건을 크게 하회한 23.5만 건을 기록하자 본격적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더 나아가 본격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9월 20일에는 중국恒大그룹 파산 우려, 부채 한도 협상 논란 등이 부각되자 나스닥이 장중에 3% 급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더 나아가 9월 28일에는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우려로 나스닥이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주춤(다우 -4.29%, 나스닥 -5.31%, S&P500 -4.76%, KOSPI -4.08%, KOSDAQ -3.38%)

10월

월 초반에는 반발 매수세와 미국 정치 불확실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 특히 최저 법인세 이슈나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된 점도 영향. 그렇지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전환 했으며,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한 점이 10월 증시 특징(다우 +5.84%, 나스닥 +7.27%, S&P500 +6.91%, KOSPI -3.20%, KOSDAQ -1.09%)

11월

견고한 실적과 코로나 종식 기대 심리로 월 초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감. 특히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급등한 가운데 테슬라는 머스크의 지분 매각 소식에 하락하는 차별화가 진행. 그런 가운데 월 중순 이후에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줄을 이어 발표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여기에 오미크론 이슈가 부각되자 패닉셀이 유입되며 변동성을 키움(다우 -3.73%, 나스닥 +0.25%, S&P500 -0.83%, KOSPI 4.43%, KOSDAQ -2.69%)

12월

매파 연준과 오미크론 이슈가 부각되자 나스닥이 장중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FOMO 증후군으로 3% 넘게 급등하는 등 일중 변동성이 컸던 월 초반 흐름. 여기에 매파적인 연준의 FOMC 발표 등도 변동성 확대 요인. 다만 견고한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간 점도 특징(다우 +5.38%, 나스닥 +0.69%, S&P500 +4.36%, KOSPI +4.88%, KOSDAQ +7.08%)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부진 Vs. 필수 소비재 업종 강세

화이자(+1.11%)는 영국 정부 기관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중증도 환자에도 사용을 승인하자 상승. 도미노피자(+1.24%)는 가격 인상을 통해 견고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포드(+1.47%)는 NYPD가 Ford Mach-E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월마트(+1.06%), 코스트코(+0.67%)는 물론 홈디포(+1.24%), 로이어스(+0.81%) 등은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의 견고함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메타플랫폼(-2.33%), MS(-0.88%), 알파벳(-0.92%), 아마존(-1.14%), 애플(-0.35%), 테슬라(-1.27%) 등 대형주들은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리밸런싱 영향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엔비디아(-0.59%), AMD(-0.86%), 마이크론(-0.79%) 등 대부분의 기술주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일 규제 완화 기대 속 급등 했던 알리바바(-3.41%), 바이두(-1.21%), 웨이보(-1.40%) 등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 노바백스(-7.60%)는 백신 공급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33	대형 가치주 ETF (IVE)	-0.07
에너지섹터 ETF (OIH)	+0.21	중형 가치주 ETF (IWS)	+0.16
소매업체 ETF (XLY)	-0.24	소형 가치주 ETF (IWN)	+0.08
온라인소매 ETF (EBIZ)	-0.72	대형 성장주 ETF (VUG)	-0.49
금융섹터 ETF (XLF)	-0.18	중형 성장주 ETF (IWP)	-0.39
기술섹터 ETF (XLK)	-0.49	소형 성장주 ETF (IWO)	-0.4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64	배당주 ETF (DVY)	+0.13
클라우드 ETF (CLOU)	-1.12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02
미국 리츠 ETF (VNQ)	+0.28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00
주택건설업체 ETF (XHB)	+0.86	미국 국채 ETF (IEF)	-0.11
바이오섹터 ETF (IBB)	-0.74	하이일드 ETF (JNK)	+0.04
헬스케어 ETF (XLV)	-0.42	물가연동채 ETF (TIP)	-0.12
곡물 ETF (DBA)	-0.3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5
반도체 ETF (SMH)	-0.34	모멘텀 ETF (MTUM)	-0.3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필수소비재	804.60	+0.71	+2.48	+9.53
소재	569.63	+0.47	+2.58	+6.42
산업재	894.96	+0.44	+1.78	+3.75
유틸리티	363.71	+0.33	+2.64	+7.87
에너지	422.74	+0.25	+1.04	+1.03
부동산	324.75	+0.18	+3.69	+8.34
금융	650.04	-0.13	+0.55	+1.40
경기소비재	1,610.76	-0.29	+0.42	+0.41
헬스케어	1,643.92	-0.39	+1.13	+8.61
IT	3,055.45	-0.49	+0.47	+3.77
커뮤니케이션	267.48	-1.21	-0.79	+2.9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36% MSCI 신흥 지수 ETF는 0.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91.1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12월 31일 미 증시가 비록 하락 했으나, 이는 리밸런싱에 따른 장 마감 직전 매물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다만, 12월 30일과 31일 이틀 연속 장 마감 직전 매물 출회된 점을 감안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여기에 12월 수출이 지난달 발표(yoy +32.0%)나 예상(yoy +22.0%)를 하회한 전년 대비 18.3% 증가에 그친 점은 부담.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수출액도 전년 대비 15.9% 증가에 그치는 등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향후 실적 추정치의 둔화 가능성이 지속된다는 점은 부담

한편, 지난 금요일 홍콩 증시가 규제 완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여기에 미국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칩 부족으로 불확실하지만, 전기차 산업의 확산은 지속될 것이라고 소식이 전해진 점,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디어 그룹이 콘텐츠 산업에 최소 1,150억 달러를 지출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을 감안 관련 종목 중심으로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된 가운데 수출 부진과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불안과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충돌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한국 수출 증가율, 예상 하회

한국 12월 수출은 지난달 발표(yoy +32.0%)나 예상(yoy +22.0%)를 하회한 전년 대비 18.3% 증가에 그쳤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에 그침. 수입은 지난달 발표(yoy +43.6%) 보다는 부진했으나, 예상(yoy +35.8%)을 상회한 전년 대비 37.4% 증가로 발표. 이렇듯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는 지난달 발표된 30억 6천만 달러 흑자에서 5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되돌림 유입되며 2.3% 하락

국제유가는 오미크론 증세가 이전 변이에 비해 중증도가 낮다는 점이 부각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왔으나, 이날은 일부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하락 마감. 특히 1월 4일 있을 OPEC+ 장관급 회담에서 현재 정책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공급 증가 이슈가 지속된 점도 부담된 가운데 날씨 및 오미크론 여파로 2,300여기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

달러화는 2021년 한해 동안 6.4% 가까이 상승해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강세를 보인 여파로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유로화는 바이크만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가 사임하고 요하임 나겔이 지명되자 강세. 나겔 지명자는 바이트만에 이어 강한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 향후 ECB가 매파적인 흐름이 더욱 강화 될 수 있음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3% 강세를 보였고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도 강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장기물은 소폭 하락 했으나, 단기물은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 속 상승 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 특히 금리가 2021년 한해 동안 60~90bp 급등해 2013년 이후 최대치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높아진 점도 장기물 하락 요인.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기대 상승 했으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며 일부 품목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임. 곡물은 남미 지역 날씨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확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여파로 하락. 대두는 주간 수출 증가 기대로 소폭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9% 상승, 철근은 0.39%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21	-2.31	+1.92	Dollar Index	95.670	-0.31	-0.36
브렌트유	77.78	-2.20	+2.63	EUR/USD	1.1370	+0.40	+0.45
천연가스	3.73	+4.75	-0.03	USD/JPY	115.08	0.00	+0.61
금	1,828.60	+0.80	+0.93	GBP/USD	1.3532	+0.24	+1.09
은	23.35	+1.27	+1.80	USD/CHF	0.9129	-0.08	-0.67
알루미늄	2,807.50	-0.37	-0.60	AUD/USD	0.7263	+0.10	+0.58
전기동	9,720.50	+0.30	+1.18	USD/CAD	1.2637	-0.82	-1.39
아연	3,534.00	+0.04	+0.07	RUB/USD	0.0133	-0.60	-1.48
옥수수	593.25	-0.46	-2.06	USD/BRL	5.5758	+0.11	-1.79
밀	770.75	-1.15	-5.40	USD/CNH	6.3570	-0.29	-0.27
대두	1,339.25	+0.06	-0.11	USD/KRW	1,188.80	+0.19	+0.08
커피	226.10	-1.20	-2.21	USD/KRW NDF1M	1,191.13	+0.02	+0.3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10	+0.18	+1.74	스페인	0.563	휴장	+5.80
한국	2.255	+8.00	+5.20	포르투갈	0.462	+0.10	+5.80
일본	0.071	휴장	+0.40	그리스	1.315	0.00	-0.40
독일	-0.177	휴장	+7.30	이탈리아	1.170	휴장	+5.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